



부산도시공사가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생명 나눔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BMC

부산도시공·부산혈액원 생명나눔단체 협약 체결

부산도시공사(BMC)가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생명나눔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혈액 수급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단체 헌혈 행사 개최, 임직원들의 자발적 헌혈 참여 독려, 헌혈 캠페인 홍보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인규 부산혈액원장은 "부산의 대표 공공기관인 부산도시공사와 손잡고 생명나눔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창호 BMC 사장은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값진 나눔이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내 헌혈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중창기자jckim@skyedaily.com

부산 6월 출생아수 1114명... 증가율 전국 최고

(전년 동월 대비 14.6%↑)

전국 평균 9.4% 웃돌아... 상반기 혼인 6255건 증가 뚜렷
합계출산율 0.68명, 9년 만에 반등... 강서구 0.97명 최고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정책 효과

부산지역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1114명으로 나타나 전년 동월 대비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 전년 동월(972명) 대비 142명 증가했고 증가율은 14.6%다.

28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의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전국 평균 증가율은 9.4%다. 지역별로는 부산(14.6%)에 이어 대전(13.3%), 광주·충북(12.1%), 경남(10.9%) 순이다.

부산의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누계)는 6904명으로 전년 동기(6423명) 대비 481명 많았다. 아울러 부산의 올해 6월 혼인 건수는 96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5건, 12.3% 증가했다. 상반기 혼인 건수(누계)는 6255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565건, 9.9% 증가했고, 전국 평균 증가율(7.1%) 대비 2.8%p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 통계 확정자료도 발표했다. 부산의 경우 2월 잠정 발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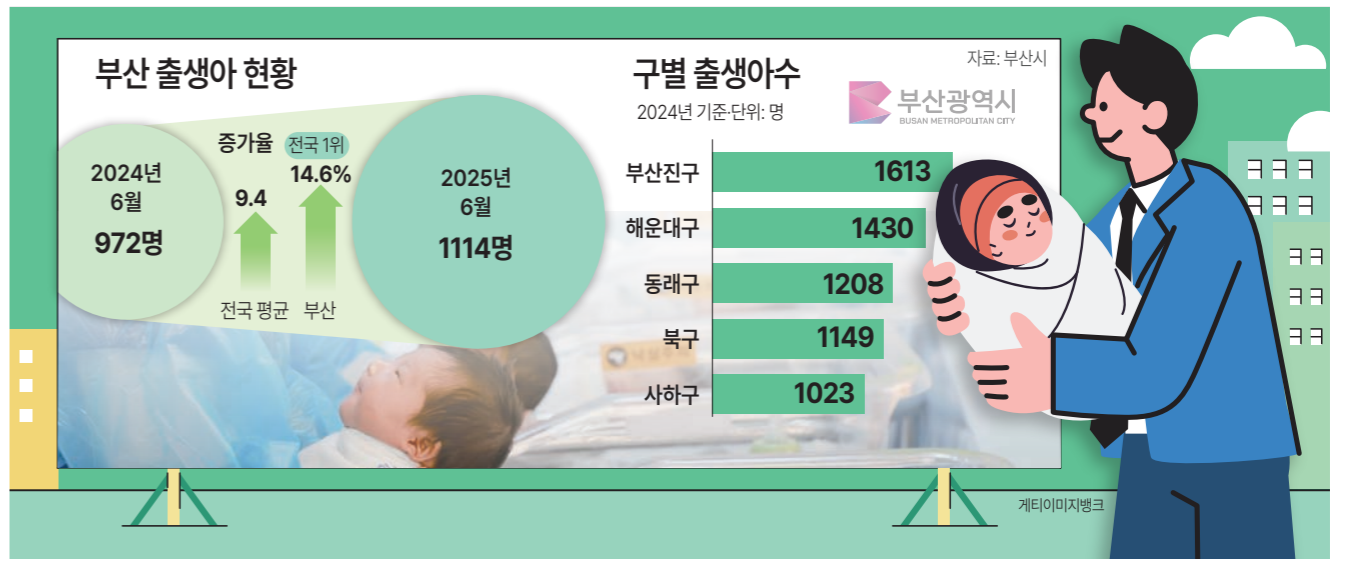
같은 출생아 수 1만3063명,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9년 만에 동반 반등했다.

구군별 출생아 수는 부산진구(1613명)가 가장 많았고, 해운대구(1430명), 동래구(1208명), 북구(1149명), 사하구(1023명) 순이다.

구군별 합계출산율은 강서구(0.97명)가 가장 높았고, 기장군(0.88명), 동래구(0.76명), 영도구(0.75명), 북구(0.74명) 순이다.

이 같은 저출생 반등 추세는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결혼·임신·출산·육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부산형 맞춤 정책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주거 정책으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러키하우스 지원, 2자녀 이상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평생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 '나의사랑, 나의 결혼' 결혼식 지원, 임신부 토크쇼 마마콜 운영, 임신부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임



산부 친환경산물꾸러미 지원, 남녀 난임 종합 지원, 가임력보존의료비 지원, 임신부 배려석 알라미 핑크라이트 운영 등이다.

또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둘째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가정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아이조아, 부산조아', 어린이 대교통요금 무료화,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부산형 365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 학습비, 특별활동비) 지원, 부산형 임원 아동 돌봄서비스, 부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15분 생활권 내 부산 어린이 복합문

화공간 '들락날락',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 있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출산·양육가정에 힘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줄이며,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임신·부양유아 가족이 함께 하는 '핑크문화데이(월 1회)' 운영, '행복한 우리 가족, 부산 사계 이야기' 달력 그림 공모전, 시와 구·군 아빠단 협동프로

그램 '함께 육아해요', 시민 참여형 저출생 대응 캠페인 '아이가 행복입니다. 부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중 지역 밀착형 영유아 전용 놀이공간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공공형 키즈카페'가 시민공원 내에 개소할 예정이다.

박종준 시장은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부모가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중창기자jckim@skyedaily.com

"북극을 선점하라... 차세대 쇄빙연구선 모항, 부산이 최적지"

국제크루즈터미널·북항 제1부두 후보지 선정 부산연구원, 조례 제정·중장기 전략 등 제안 전국 지자체 유치 뜨거워... 시, 전담조직 출범

부산연구원이 27일 '북극 회랑' 선점을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모항 부산 유치 전략'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부산의 글로벌 북극항로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 전략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현 정부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과 관련해 쇄빙연구선 모항으로 부산이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부산시가 올해 2월 '부산 북극항로 개척 전담조직'(TF)을 출범하고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국가·지역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발간돼 더욱 의미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해빙 가속화로 북극항로가 육상·해운·항공 기반 복합운송

체계 기반의 '북극 회랑'으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북극항로 개척관련 다양한 어젠다 선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대안으로 북극회랑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 모항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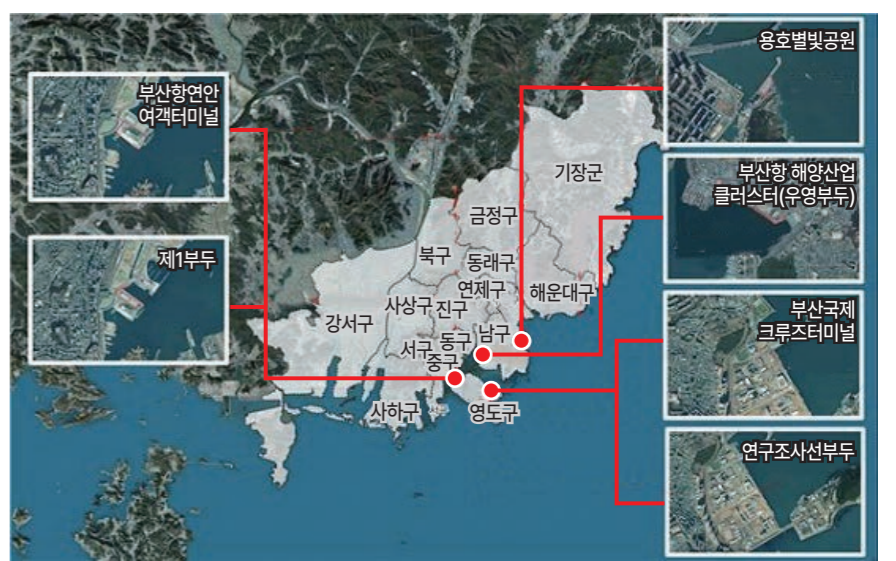
연구진은 남극 5대 관문도시와 북극 관문도시의 쇄빙연구선 모항 인프라 구축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극지정책·항만개발·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대상 AHP 기반 설문조사를 통해 모항 선정기준의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핵심 전략으로는 북극항로 하드 인프라 구축, 북극항로 소프트 솔루션 강화,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차세대 쇄빙연구선 모항을 고려해 부산 6개 항만시설(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 용호별빛공원,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영도 연구조사선부두, 제1부두, 우암부두)을 분석한 결과 부산 국제크루즈터미널과 부산항 북항 제1부두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다.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과 부산항북항 제1부두가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항만 인프라, 운영지원 시스템, 지역 연계성, 연구 인프라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북극항로 추진 방안으로 '부산시 차세대 쇄빙연구선 유치·지원 조례' 제정, 부산 극지 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북극 경제이사회(AEC)와의 공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모항 부산 후보 항만.

부산연구원

연구원은 또 단계별 추진 로드맵으로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 5단계에 걸쳐 기반조성부터 글로벌 북극항로 연구 거점까지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향후 선정 예정인 차세대 쇄빙연구선 모항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국가공모방안을 제시, 객관적이

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제안했다.

신현석 원장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모항 유치를 통해 부산이 글로벌해양허브 도시로 도약하고 북극항로 개척의 선도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의 혁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중창기자jckim@skyedaily.com



기장군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기장 사회복지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기장군

기장 사회복지 주간행사 개최 내달 1~12일 표창·공연 등 다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기장 사회복지 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26회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군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의미 있는 이번 행사는 기장군이 주최하고 기장군의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기장군지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이 협력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다음 달 8일 고리스포츠헤럴터 멀티공영장에서 기념식이 있다. 이날 모범 사회복지사 및 우수기관 유공 표창,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강연, 기념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의 날을 널리 알리고 종사자들의 헌신을 조명하는 다양한 콘텐트도 선보인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해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군 전역에 송출하며 관내 사회복지 기관 이용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연결' 챌린지 쇼츠 영상 공모전도 열린다.

공모전은 '작은 나눔'을 주제로 진행되며 우수기관 3곳을 선정해 다음 달 8일 기념식에서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중복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께서 사회복지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창기자jckim@skyedaily.com

"아이들 등굣길 안심하세요"... 구미시, 안전통학로 조성

9월부터 보행환경 개선 추진 도랑초교 등 6곳 방호울타리 스마트 횡단보도도 4곳 도입

경상북도 구미시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고 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학부모들의 통학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조성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업 내용은 도랑초교 등 6개소의 통학로에 하중 검토를 거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옥계동부초교 등 4개소에는 보행자 자동 인식해 무단횡단을 감지하는



구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을 내달부터 본격화한다. 구미시

구미시

'스마트 횡단보도'도 도입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과제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찬희기자chlee2@skyedaily.com

부산항만공사, 진해신항에 AI 기술 도입

2045년까지 14조 원 투입 하역 프로세스 개선 기대

부산항만공사(BPA)가 국내 최대 규모로 개발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에 항만특화형 인공지능(AI) 혁신기술을 도입한다.

진해신항 개발은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2045년까지 약 14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포트로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의 핵심사업이다.

BPA는 부산항 진해신항 하역장비 통합제어시스템(ECS)과 해양인프라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용역을 9월부터 18개월 동안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국내 최초의 완전자동화 부두인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 후 자동화된 하역장비와 터미널 운영 시스템 간 유기적 연결 및 시스템 호환이 향후 과제로 논의돼 왔다.

BPA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동화부두 내 주요 용역을 통해 자동화부두 인터페이스를 구축, AI 기반 작업 할당 및 스케줄링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터미널운영시스템(TOS)의 하역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항만에 인접한 해상과 파고, 기후 등 해상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및 자료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공사 및 터미널 운영 중 월파에 의한 해상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나아가 자율운항선박 시대에 대비한 해상 데이터 축적에 나선다.

김중창기자jckim@skyedaily.com